

“타이”의 일본계 섬유평장

- 노동력 부족의 어려운 상황 표면화

2011년부터 “타이”에서 일본계 섬유평장이 많이 몰려 있는 “방콕”이나 “사뭇프라칸” 니구의 “최저 1일 임금액”이 206바츠(baht)이던 것이 215바츠로 올랐다. 그 위에 2011년에는 국정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타이”의 총리가 “임금을 더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타이”는 전반적으로는 호경기라서 실업율도 1%를 밑돌고 있다. 그리하여 원래 손익분기점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낮으며,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이 나라의 섬유평업에서는, 사람 부족이 더 빨리 올 것 같다. 이 타이밍으로 이 나라의 큰 4개 봉제회사가 “베트남”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런 상황은 임금상승으로 수익력, 경쟁력이 낮아진 것이 이유이다. 당연히 “타이”에 있는 일본계 섬유평업에게도, 노동력 부족이라는 큰 장애물이 덮쳐올 것이다.

“타이”의 2010년도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165만대로써, “리먼쇼크(Lehman shock)” 후의 세계 동시불황으로 크게 떨어진 2009년의 99만대로부터 V자 회복을 이루었다. 전기·전자 산업도 회복이 빨랐다. 섬유평업들도 많이 업적이 호전되었지만, 노동력을 확보하는 점에서도 자동차나 전기·전자사업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

어떤 일본계 봉제공장의 사장은 “타이에서 봉제산업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이며, 봉제의 역할은 끝났다.”고 본심을 흘렸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타이에서 다른 동업자들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공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실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한 모양이 되었다.

“이토즈계(伊藤忠系)”의 방직가공 계열회사인 “TTL인더스트리스(Industries)”도 “섬유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올라,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고 위기감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염색공장의 이직율이 높으며, 사람을 구하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구라보·마루베니계(丸紅系)의 염색회사인 “타이 텍스타일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 : TTDF)”에서도 “사람 모으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며, 특히 22~28세의 청년층의 이직율이 높은 것 같다. “도레이그룹”에서도 “사람 구하는 것이 큰일이다.”고 하는 상황에서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되어버렸다.

대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이나 수산가공업 등은 “라오스” 등의 주변국으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곳이 많아졌는데, 일본계 섬유기업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타이에 있는 일본계 섬유기업의 대부분이 타이투자위원회(BOI)의 인가를 받고 있으며, 세금이나 투자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BOI의 의도 중 하나가 “타이 내에서의 고용을 빨리 재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뽑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그러면 타이 내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급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가,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동남아시아, 남서 아시아가 주목을 끌어, 이에 따른 소재의 공급지로서 타이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어려운 문제로 타이에 있는 일본계 섬유기업은 이제까지 보다도 더 어렵게 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